

국민의힘 “尹 유일한 야권 후보”... ‘투표로 단일화’ 본격화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사실상 무산 정권교체론 과반인데尹지지 40%대

대선을 7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간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 수순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은 ‘투표로 단일화’ 전략을 본격화한 모양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은 50%를 상회하는 반면 윤 후보 지지율은 40% 중반대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면서, 남은 5%가량을 안 후보 지지층에서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1일 선대본부 회의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야권의 후보인 우리 후보에게 결집되고 있다”고 말해 포문을 열었다. 이에 그간 단일화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당 중진들도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1일 신촌 유세에서

“야권의 유일한 후보인 윤석열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권교체를 원하는 표 중 안 후보 지지 표가 이동할 가능성’ 질문에 “그래도 우리 야당(윤 후보)으로 움직여 조금은 더 많지 않나”라고 답했다.

선거 사령탑으로서 이준석 대표의 단일화 관련 언행 자체를 주문하기도 했던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1일 “전화를 해도 통화도 안 되고 실무협상은 할 때마다 부인당하는 입장에서, (양 후보) 본인이 만나는 게 중요한데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 어려움은 있다”고 책망에 가까운 입장을 냈다.

권 본부장은 2일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단일화 성사를) 기다리지만 지금 쉽지 않고

결국 투표로 단일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밝혔다.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월28일~3월1일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46.3%, 이 후보는 43.1% 지지율을 보여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고, 안 후보는 6.7%로 나타났다.

한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52.9%로 집계돼 정권 재창출을 선택한 41.8%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지지 후보 계속 지지 여부’ 질문에는 윤 후보와 이 후보 지지층이 모두 90%대 긍정을 연어낸 한편 안 후보 지지층은 74.8%로 나타나 21.2%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 측은 ‘사표론’ 등 안 후보 지지층 내에 유동적 표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단일화 결렬로 안 후보 지지층의 일부가 이미 윤 후보로 옮겨온 상태고, 더 이상의 이전은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시



스와 통화에서 “(윤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 자신에게 몰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대부분은 반영이 됐다. 지난 며칠간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상승세를 보인 게 그 표가 이동한 것”이라며 “원래 안 후보 고유의 표가 많게는 7% 정도 있는데, 그것은 움직이지 않

을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안 후보는 끝까지 가겠다는 거니까 4차 구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판이 다 정해져 있어서 남은 부동층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환기자

與 “대선 D-7 ‘초초박빙’...尹보다李 상승폭 커 역전 가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판세에 대해 “초초박빙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최종 전략은 누가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내다봤다.

자당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밀리는 여론조사에 대

“與, 한중 균형을 하려면 방위비 더 많이 드는 것 간과”

해선 “사실 이전 조사 결과로 예측, 분석이 무의미한 시점”이라며 “누가 투표장에 더 많이 가나 싸움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 여론조사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2주 동안 여성, 수도권, 2030대에서 상승세가, 중도층까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도층의 경우 이 후보의 상승폭이 윤 후보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노력한다면 지지율 역전도 가능하고,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고 분석한다”고 했다.

윤 후보에게 오차 밖으로 밀렸다는 조사를 의식한 듯 “의도적인 왜곡을 경계하고 있다”며 “일부 격차가 벌어진 조사가 발표됐지만 많은 문항이 포함돼 조사값이 왜곡된 게 한두군데 확인됐다”고 방어선을 쳤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와 관련해선 “이번 선거에서 유불리 판단은 어렵다고 본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투표 분산이 많이 이뤄질 거라서 사전투표를 많이 할 거라고 예측한다. 그게 꼭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보는 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층에 대해선 “최근 (조사를) 종합하면 3주 만에 15%에서 6%로 줄었다”며 “9% 정도가

투표를 결정하게 됐고 이제 남은 6%를 놓고 진영간, 후보간 대결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강 본부장은 또 윤 후보를 겨냥해 “(부인 김건희씨) 주가 조작, 시력 조작을 통한 병역 면제, 또 범죄 조작, 범죄 봐주기 의혹은 단순한 의혹으로 주장하기엔 사실관계가 계속 드러나기에 국민적 검증 대상”이라며 “이 모든 사안들이 대통령 후보 자격과 관련된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지 않고 부정적 단어만 쓰는 반면 우리 후보는 미래, 희망을 계속 얘기한다면 그래도 (부동층이) 내 소중한 한표를 미래와 희망에 던질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대선 중도하차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에 대해선 “쉽지 않은 결단을 하셨다.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나갈 것을 다시 약속드리고 다른 후보들도 국민통합 연합정부에 대한 화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최이슬기자

尹 “사전투표 적극 참여해달라 투표권 보장 추가 조치 필요”

“확진 20만명 넘어...확진·격리자 수에 따라 대선 결과 다를 수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일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이 코로나로 인해 자칫 방해받지 않도록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주시라”며 “저 윤석열도 사전투표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명이 넘었다. 이 추세라면

확진자·자가격리자의 투표 참여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가격리 국민께서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5~6시 사이에 투표장에 도착하셔야만, 본 선거일은 9일 오후 6시~7시 반 사이에 투표장에 도착하셔야만 투표가 가능하다”며 “복잡한 조건으로 인해 국민께서 투표를 포기하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누적 수백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렇게 짧은 시간에 투표가 모두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코로나로 국민의 투표권이 없어지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이 모든 공명선거 조직을 가동해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라”고 거듭 당부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